

보도해명자료

('18.7.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역대최고...절반 이상이
非청정 연료” (7.16, 연합뉴스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지난 2017년 전력거래 중 태양광·풍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은 30% 수준
- ☐ 업계 관계자는 “정부가 3020 목표에 맞추기 위해 폐기물이나 바이오 에너지 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”고 언급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보도된 자료는 ‘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’ 발표('17.12) 이전인 2017년 전력거래 규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
- 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바이오·폐기물 등의 비중을 줄이고, 태양광·풍력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
 - 바이오, 폐기물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의 경우 REC 가중치를 축소하여 신규 설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,
 - 향후 신규 설비의 95% 이상을 태양광,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 과장 (044-203-5360)
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